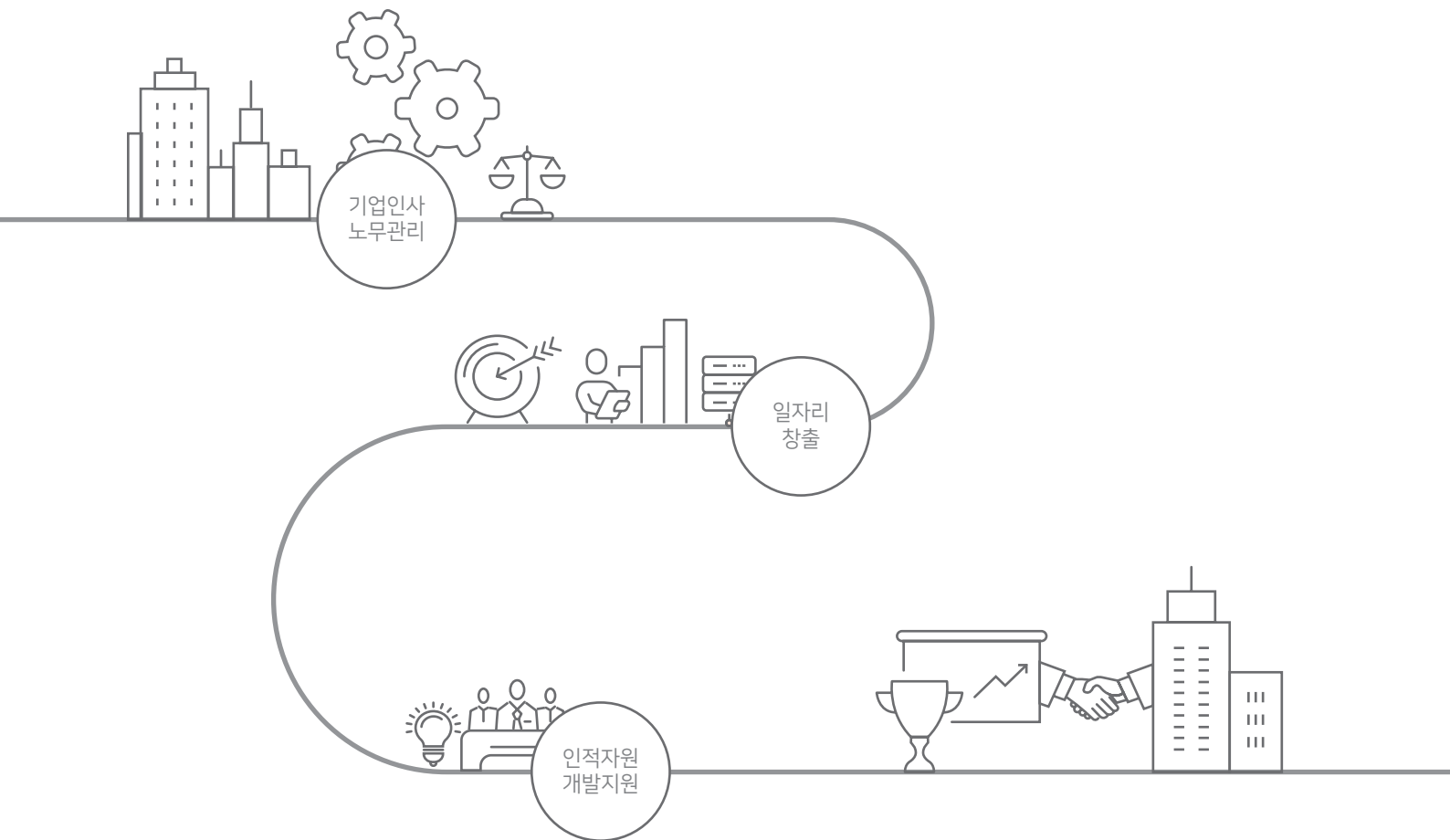


- 주간 -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고객과 함께하는 홈런데이’ 성황리에 마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한화이글스의 야구 경기에 광주은행 고객 및 임직원 등 3000여 명을 초청해 ‘고객과 함께하는 홈런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광주은행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막바지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 힘찬 걸음을 하고 있는

KIA타이거즈를 응원하고, 가을야구 진출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광주은행 고객 및 임직원들과 함께 승리의 염원이 담긴 열띤 응원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의 끊이지 않는 지역사랑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금융을 넘어 이제는 지역 스포츠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광주은행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며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 전남대병원에 헌혈증서 200매 기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5일 지역 사회 혈액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 200매를 전남대학교병원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헌혈증서 기증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남대병원과 상생하며 지역 대표은행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추석 맞이 1천만원 상당 제수용품·식료품 나눔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곡성 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물품은 광산구청을 비롯해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지역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과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모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결혼 성수기 맞아 혼수용품 프로모션 마련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혼수용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인기 품목들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본관 8층 '바디프랜드'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80% 이상 상승할 정도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바디프랜드에서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혼수용품과 추석 효도선물을 찾는 고객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안마의자 1+1 행사를 진행한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결혼 비수기인 8월이 지나면서 혼수용품을 찾는 고객들의 증가를 예상해 사은품 증정과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안마의자와 침대 등은 직접 앉아보고 누웠을 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만큼 혼수를 준비하시는 고객들께서 광주신세계를 찾아주시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 신관 지하 1층 '가을맞이' 새단장



이동훈 대표이사는 "신관 지하 1층에 새로운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영패션과 스포츠 브랜드 전문 매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언제나 새롭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에 따르면 신관 지하1층을 신규 매장과 리뉴얼 브랜드 10여개 이상으로 꾸몄다.

편집숍인 '세이프 힐즈'에서는 '블런드 스톤', '네이티브', '피카딜리', '아치스', '에무 오스트레일리아', '스트라이브', '프리어스', '헤이브리드', '르무통', '마니토바' 등 10개의 브랜드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

보해양조

◆ 추석맞이 프리미엄 선물세트 12종 선보여



터 오후 8시 사이 진행된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선물세트와 편리한 구매 채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9일 추석을 앞두고 프리미엄 선물세트 12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기간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15년 숙성 매취순' 시음행사도 열린다. 광주신세계는 매취순 선물세트 특설코너를 마련해 지역기업간 상생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음 행사는 15일까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 사이 진행된다.

삼성전자

◆ 삼성TV플러스 "2억7천만 스마트TV 바탕으로 FAST 시장 선도"



삼성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의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 TV 플러스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대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FAST 서비스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

으로 빠르게 성장해 2019년부터 5년 사이 약 20배 성장했다.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18억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용수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타이젠OS 기반 서비스 비즈니스는 2021년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으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성장률을 능가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 의생명연구원 연구활성화 워크숍



전남대병원(원장 정 신)은 '2024년 의생명연구원 연구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연구중심병원 인증, 바이오헬스산업 유치, 글로벌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 등 의료 연구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 신 병원장은 "연구 중심병원 인증을 통해 바이오 연구산업화와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전KDN

◆ 시각장애인 맞춤형 IT시설 'KDN IT ON' 구축·기증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최근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KDN IT ON’ 제3호를 구축·기증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고 10일 전했다.

한전KDN은 시각장애인의 IT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센스리더 등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능동적인 정보습득으로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김장현 사장은“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사업인 IT ON 구축·기증으로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업무 특성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의 일상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 시민 동참 청렴뮤지컬 개최 눈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최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나주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뮤지컬’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청렴뮤지컬은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을 정형화된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뮤지컬 형식을 접목

해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였다.

한편 한전KPS는 지난 1월 상임감사 취임 직후 올해를 ‘청렴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렴도 향상계획 수립에 이어 ▲상임감사 직할 청렴혁신 추진단 가동 ▲노사감 합동 청렴감패트를 ▲CEO 청렴혁신 협의체 신설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청렴뮤지컬을 통해 내부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이 청렴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해 청렴 역량을 한층 올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한전KPS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 협력사에 1140억원 지급...추석 자금난 지원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10일 1140억원의 공사 및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려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협력사들과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협력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호반건설그룹은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호반건설그룹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당진시와 시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김선규 호반건설그룹 회장은 “이번 성금이 수해 현장의 빠른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제1661회 금요조찬 포럼>

<광주경총-불교방송 업무협약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양진석, (주)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9월 6일 금요일 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불교방송(사장 최갑렬)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안내 및 우수기업 홍보, △금요조찬포럼 운영과 홍보 지원,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확대를 위한 협업 등의 내용이다.

광주 불교방송 최갑렬 사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온 광주경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주불교방송은 앞으로 경총과 함께 각종 사업을 널리 홍보하며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양진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문화콘텐츠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포럼 강연은 새터민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차소연(류경 대표)씨가 '사선(死線)에서 사선으로'라는 주제로 북한에서 탈북하게 된 경위부터 중국에서 생존을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과정과 한국에서의 도전을 위한 삶,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내용에 대하여 강연했다.



1. 경제동향

◆ 경총, 「임금·HR연구 2024년 하반기호」 발간 (9.2)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2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주제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4년 하반기호를 발간
- 경총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임금·HR연구」 하반기호 특집주제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으로 선정
 - － 주제발표를 맡은 한보연 EY컨설팅 파트너는 “저성장, 글로벌 경쟁 심화, 초불확실성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자 필수 요소”라고 강조
 - － 연구논단에는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인사관리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여섯 필진의 글을 수록
 - ※ 연구논단 주제와 집필진
 - － 전통적인 생산성 지표를 넘은 새로운 성과관리로의 전환 : 김성진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
 - － 조직 생산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우수인재 활용법 : 이피어나 핀터레스트 피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 MZ세대 몰입을 위한 일터의 설계와 새로운 리더십 :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 － 생성형 AI의 활용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박은연 실리콘밸리 HR 포럼 회장
 - －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환경 구축 방안 : 윤명훈 원터드랩 Chief of Staff
 - － 최근 판례를 통해 본 저성과자 인사관리 제도 구축 방안 :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 사례연구에는 상사와 부하의 정기적 ‘원온원’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 SK하이닉스의 사례와 직원 의견조사 ‘마이보이스(My Voice)’를 통해 직원 몰입도 및 조직문화를 제고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사례 소개

◆ 경총,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 개최 (9.4)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9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공개초안의 대폭적인 손질과 정부의 신중한 제도 추진을 촉구
 - － 지금의 공개초안 수준으로는 공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일관성,

유용성 등 기본적 공시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성토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B2B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정보공시 대응에 한계가 크다”며,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급적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많은 상장회사가 동참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공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
- **발제**를 맡은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회사 및 배출량 검증 전문가의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시기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해 기업들은 자체 활용보다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 이대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 기업은 준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과도한 비용, 공시 이후 무분별한 소송과 업무 비효율 등 악순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것
 - 특히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컫는 Scope 3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증 전문가들조차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불투명하게 생성된 정보를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유용하다고 말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
-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의 정비와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각국마다 정치·경제, 법제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선 부른 제도 도입보다 국익 보호 관점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
 -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정합성을 추종하며 국내 기업 현실을 무시하는 접근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면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산업계가 부담이 크다고 하는 기준에 정합하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
 -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법률을 통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지속가능경영 속성상 개별 기업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지속가능성 공시가 본래적 기능을 하려면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업 선택에 대한 규제당국과 시장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
 -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적 의무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은 그 기준에 맞춰야 해 자칫 질 좋은 제품, 경제적인 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의 후생이 저하될수도 있다”며, “우선은 자율공시를 하고, 의무공시는 유럽과 미국의 시행착오를 검토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밝힘.
 -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공시제도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공개초안은 오히려 투자자의 비교가능성과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규제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

-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EU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서두르는 것은 단순한 투자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역내 이익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때는 국제 동향을 다양하게 참고하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 제출하여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공시 의무화 일정의 경우 민관이 충분한 제도적 준비를 거쳐 2028 회계연도 이후 거래소 공시부터 적용(2029년 공시)할 것을 제안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9.5)

-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감소*(전년동기대비 2.3% 증가)
 - * 지난 '24.7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 다만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설비투자(+0.9%p), 수출(+0.3%p), 수입(+0.4%p) 등이 상향 수정되고 건설투자(△0.7%p), 정부소비(△0.1%p) 등이 하향 수정
 - ※ 분기별 성장률(% , 전기비) : 0.6('23.2q)→0.8(3q)→0.5(4q)→1.3('24.1q)→△0.2(2q)
- **(지출항목별)** 수입(1.6%), 수출(1.2%), 정부소비(0.6%)은 전기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1.7%), 설비투자(△1.2%), 민간소비(△0.2%)는 전기대비 감소
- **(경제활동별)** 건설업(△6.0%)은 전기대비 크게 감소했고, 제조업(0.8%), 농림어업(4.4%)은 전기대비 증가.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
- 2024년 2/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4% 감소(전년동기대비 3.4% 증가)

◆ 통계청,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8.30)

- **(생산)** 2024년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0.7%) 등에서 늘었으나, 광공업(△3.6%)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 전산업생산은 '24.5월(△0.8%)부터 3개월 연속 감소(전월대비 기준)
 - ▶ 전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2.3('24.3)→1.4(4)→△0.8(5)→△0.1(6)→△0.4(7)
- 광공업생산은 통신·방송장비(48.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8.0%), 자동차(△14.4%)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3.6% 감소*(전년동월대비 5.5% 증가)
 - * 광공업 생산은 지난 '22.12월(△3.7%)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전월대비 기준)
-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1.3%)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7% 증가(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4년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4%로 전월대비 2.4%p 하락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71.4(24.3)→73.8(4)→72.9(5)→73.8(6)→71.4(7)
- **(제조업 재고율*)** 2024년 7월 제조업 재고율은 114.6%로 전월대비 9.7%p 상승(전년동월대비 4.8%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11.3(24.3)→109.8(4)→110.6(5)→104.9(6)→114.6(7)
- **(소매판매)** 2024년 7월 소매판매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승용차 등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1.9% 감소(전년동월대비 2.1% 감소)
- **(설비투자)** 2024년 7월 설비투자는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1.6%)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0.5%)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10.1% 증가(전년동월대비 18.5% 증가)
- **(건설투자)** 2024년 7월 건설투자는 건축(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토목(△8.9%)에서 줄어 전월대비 1.7% 감소(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전월대비 0.6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전월과 동일)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8월 수출입동향」 발표 (9.1)

- **(총괄)** 2024년 8월 수출은 579.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했으며, 수입은 540.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 ※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4.9%)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3.6(24.4)→11.5(5)→5.6(6)→13.9(7)→11.4(8)
 - 8월 무역수지는 38.3억 달러 흑자를 기록(15개월 연속 흑자)
 -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14.2(24.4)→48.7(5)→82.8(6)→36.0(7)→38.3(8)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 중 컴퓨터, 선박, 무선통신,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 ※ 2024년 8월 품목별 수출증감률(%) : (컴퓨터) 183.2, (선박) 80.0, (무선통신) 50.4, (바이오헬스) 39.0, (반도체*) 38.8, (석유화학) 6.9, (석유제품) 1.4, (철강) △1.7, (자동차부품) △3.5, (자동차) △4.3, (이차전지) △4.5, (섬유) △4.8, (가전) △4.9, (디스플레이) △4.9, (일반기계) △5.9
 - * 8월 반도체 수출은 119억 달러를 기록하여, '23.11월(12.9%)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56.1(24.4)→54.4(5)→50.9(6)→50.2(7)→

38.8(8)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 중 對중동(2.6%)을 제외하고 對중남미(29.4%), 對EU(16.1%), 對 CIS(11.2%), 對미국(11.1%)*, 對중국(7.9%), 對일본(6.8%), 對인도(2.3%), 對아세안(1.7%) 수출은 증가

* 對미국 수출은 '23.8월(2.4%)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

◆ 통계청,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9.3)

-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은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

※ 소비자물가는 2024년 4월(2.9%) 이후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2.9('24.4)→ 2.7(5)→ 2.4(6)→ 2.6(7)→ 2.0(8)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기타 상품 및 서비스(3.5%), 음식 및 숙박(2.7%), 의류 및 신발(2.5%)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기·가스·수도(3.3%)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3.0%)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2024년 8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2. 노동동향

◆ 김문수 신임고용부장관이 취임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의 지속추진 의지표명

-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8. 30 취임식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으로 ‘노동개혁 완수’, ‘노동약자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명
 - 김문수 장관은 ① 노동개혁과 함께 규제 완화와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② ‘노동약자보호법안’ 마련 및 임금체불 근절 등 약자 보호, ③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체계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강조
 - 한편, 김문수 장관이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부는 악의적·상습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 ※ 고용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8. 26부터 9. 13까지 5천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진행
- 여당도 ‘노동개혁 완수’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 피력
 -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는 9. 5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유연한 선택, ②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
 -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9. 3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가칭)노동대 전환 특별위원회(이하 ‘노동대전환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
 - 여당은 ‘노동대전환 특위’를 통해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노동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노동계는 정치권과 연대한 요구사항의 입법이슈화에 주력

- 제22대 정기 국회는 9. 2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정 개시
 - ※ 국회 주요 일정 : 본회의(9. 26), 국정감사(10. 7 ~ 10. 25)
-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9. 2「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을 발족
 - ※ 실천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맺은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시작
 - ※ 실천단은 전현희 의원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3명으로 구성
 - 실천단은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 강화,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제시

- 한편, 실천단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지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만큼 한국노총은 실천단을 통한 입법 요구 및 현안 해결에 주력할 전망
-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9. 4 양 노총을 각각 방문한 가운데 양 노총은 주요 입법 요구사항 등 전달
 - 양 노총은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조국혁신당은 양 노총에 정책 연대 강화 등을 제안

◆ 한국노총산하금융노조는 9. 25 산별파업을 예고한 반면, 보건분야 집단교섭은 합의안 도출

- 금융노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노조)는 4. 17부터 4차례 교섭을 했으나 노조는 7. 25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부대표자회의(8. 14)에서 산별파업 결정
- 금융노조는 투쟁 결의대회(9. 4, 9. 11)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투쟁 분위기 조성 zu 주력
 - ※ 금융노조의 9. 4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경찰 추산)
 - 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5.1% 인상, ▲주4.5일제 실시, ▲은행 영업점 근로시간 단축 등 과도한 요구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 1.9% 인상 제시
 - ※ 금융노조는 8. 28 재적 조합원 66.7%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쟁의권 확보
 - 금융노조는 결의대회 등을 통해 주요 요구사항인 주4.5일제 및 은행 영업시간 단축의 이슈화 시도
- 반면, 보건 의료 분야 노사는 9. 4 집단교섭에 합의안 도출
 - ※ 보건 의료노사는 5. 8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했으며, 76개 의료기관 노사가 참여
 - 주요 합의 내용은 ▲보건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장별 협의,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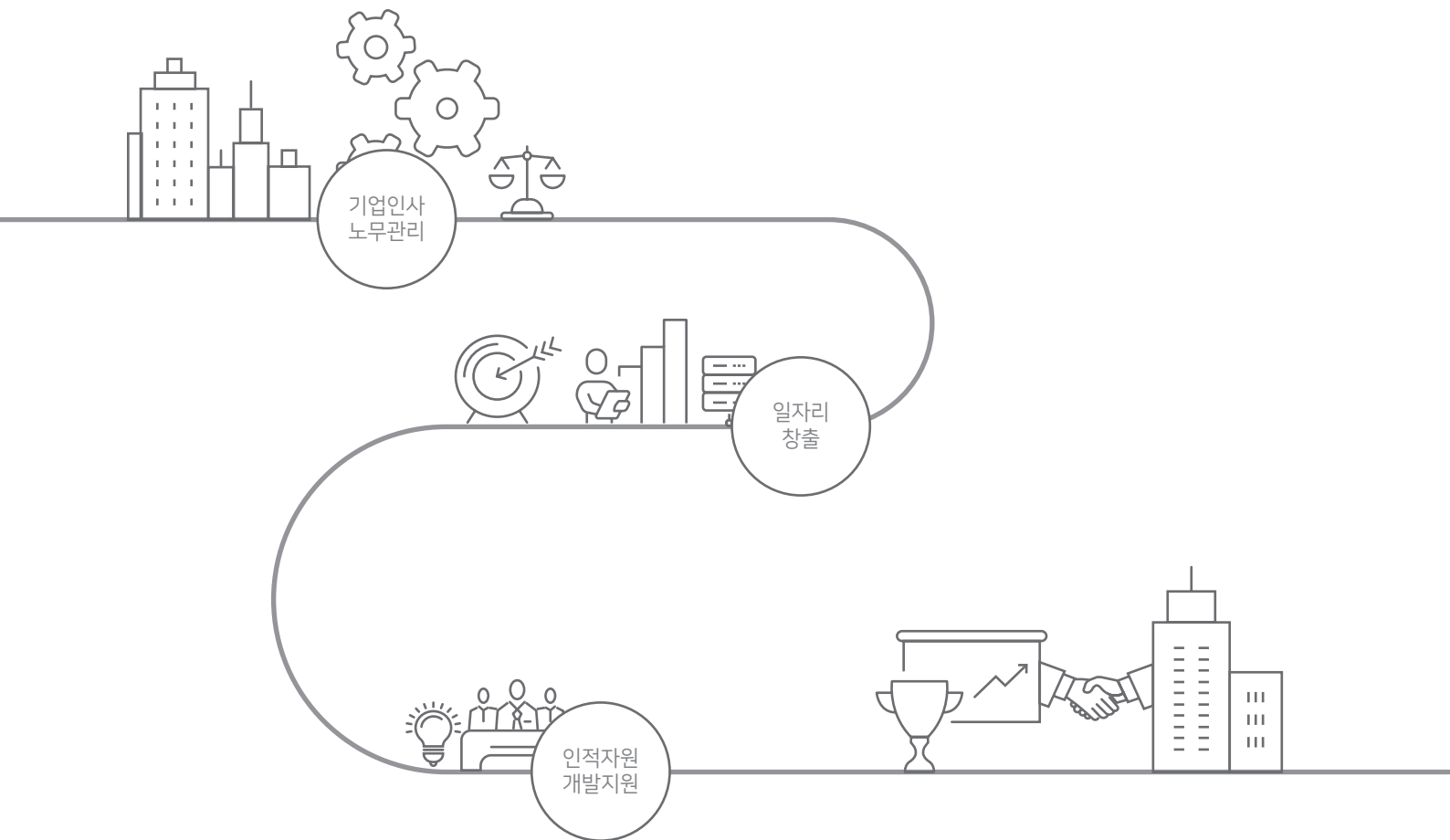
◆ 주요 완성차사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있는 반면, 조선업계는 노사관계 불안 지속

- 주요 완성차사의 2024년 임단협은 현대차를 시작으로 한국GM, KG모빌리티 등이 노사합의하면서 마무리 국면
 - 한국GM 노사는 9. 4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조합원 60% 찬성으로 가결시킴.
 - 한국GM 노사 임단협 주요 내용 : ① 기본급 101,000원 인상, ② 일시/성과급 1,550만원 지급
 - KG모빌리티 노사는 8. 30 ① 기본급 72,000원 인상, ② PI(생산 장려금) 250만 원 및 PS(이익 분배금)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

- 르노자동차 노사는 9. 3 ▲기본급 73,000원 인상, ▲성과급 3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고 르노자동차 노조는 9. 6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진행 예정
- 반면, 기아차 노사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임단협 교섭 난항 지속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주요 요구사항 : ▲기본급 159,800원 인상, ▲성과금(영업이익의30%), ▲특별성과금(영업이익의 2.4%), ▲정년연장
- 한편,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8. 28 파업(3시간)에 이어 9. 4 파업(4시간) 강행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주요 요구사항 : ▲기본급 159,800원 인상,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동일),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 현대중공업지부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전지하면서 9. 9 추가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 우려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 60만원) ◦ 2년 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 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 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 최근 1년 이내 ◦ 청년층 연령 :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 	654-3427
6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 ◦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전문가 자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